



지난해 6월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에서 열린 한라미술인협회 기획전 '터닝포인트2022' 개막 행사 뒤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 작가 활동의 장 마련해 주고 싶다”



<5> 한라미술인협회

1980년대에 예술가로서의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한 제주출신 미술인들은 종종 만나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했다. 그렇게 교류를 이어오던 제주출신 미술인들이 한라미술인협회를 만들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제주 작가들의 모임으로 그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제주출신 미술인 가운데 본격적으로 제주에서 서울에 진출한 세대인 강요배·고영훈 작가가 모임의 주축이 돼 시작했다. 회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제주출신 미술작가들이다. 모임은 1기 김영철(서양화), 2기 고영훈(서양화), 3기 고경훈(서양화), 4기 김영호(미술평론), 5기 김용주(서양화), 6기 김영호, 7·8기 강법선(동양화), 9기 전재현(한국화), 10기 강승희(판화), 11기 김순겸(서양화), 12기 이기조(공예) 회장이 이어져왔다.

10기 회장에 이어 지난해 13기 회장직을 맡게 된 강승희 회장(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은 지난 14일 “엄혹했던 80년대, 사상적으로 혼



강승희 한라미술인협회장

란한 시기에 가난 속에 근근히 작가 생활을 유지하던 제주출신 미술인들이 가끔씩 만나 막걸리를 기울이며 서로를 응원하던 게 이 모임의 시작”이라고 한라미술인협회를

줄이 거의 없다시피한 제주출신들이 얼마나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자긍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협회 구성원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뿐만 아니라 제주대, 제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출신들이 서울 중·고등학교에 대거 발령을 받게 된 때가 있었는데 그 때 회원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면서 한라미술인협회 회원 규모도 기존 11명에서 50명이 늘어 지금은 70명까지 확대됐다.

역량있는 제주출신 미술인들의 모임이다보니 회원들은 제주 미술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영호 미술평론가(중앙대학교 교수)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

제주출신 미술인 고향 정 나누며 청년작가 지원 80년대 미술인들 서로 격려하던 모임에서 시작 작가들 위상 높아지면서 모임 규모 확대·활성화

소개했다.

소규모 모임이 지속되다 1996년 한라미술인협회라는 이름을 걸고 협회가 발족됐다. 발족 당시 모임의 회원들은 대한민국 미술계의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작가들이 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모임에 큰 힘이 되는 선배 작가들을 비롯해 미술계에서 활약하는 회원들이 모임의 일원으로 함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예술 계통에 연결된

큰 역할을 했다.

한라미술인협회는 창립 이후 서울 또는 제주에서 정기전을 통해 회원들의 작품을 알리고, 제주 작가들을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창립전 ‘바람의 흔적(1998)’을 시작으로, 정기전 ‘바람의 향기(1999)’, ‘바람의 기억(2001.11)’, ‘바람의 전설(2001.11)’, ‘바람의 신화(2004)’, ‘바람의 기원(2006)’, ‘한라-별을 품다(2008)’, ‘한라미술인 협회전(2010)’, ‘마음의 고향, 한

라’(2013), ‘한라산’(2017) 전시를 이어왔고, 2022년 ‘터닝포인트(Turning Point 2022)’라는 제목의 정기전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정기총회 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한다. 프로작가들도 타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다.

회원들의 경력과 연륜이 쌓여가면서 이제 협회는 제주출신 청년작가들을 적극적으로 화단에 소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 회장은 “회원들이 이제는 이 분야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려웠던 것을 돌아보면서 전시 기회도 마련하고 지원해주는 등 청년작가 발굴에 모임 운영의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4년간 만남을 거의 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제주갤러리가 생기면서 협회 활동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도 마련됐다. 인사동 가나아트센터 1개 층 전체를 임대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갤러리는 제주출신 미술작가들의 서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제주 작가들은 감각이 살아있고 개성이 뚜렷하다”며 “요즘 제주에서 올라온 세대들은 현대미술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제주 작가들을 환영해 주고, 활동의 장을 계속 만들어주고 싶다는 게 회원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부미현기자

영화觀

우정의 끝

‘킬러들의 도시’와 ‘쓰리 빌보드’의 감독 마틴 맥도나의 신작인 ‘이니셰린의 벤치’는 1923년 아일랜드의 외딴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멀리 떨어진 본토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내전의 총소리가 간간히 들려 오지만 마을은 대체로 평화롭다. 군데군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들과 한적한 마을 길을 걷는 당나귀와 소들 또한 급한 구석이 없다. 일견 단조롭고 때론 무료하게 느껴지는 이니셰린. 이곳에 사는 남자 파우릭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한량으로 보인다. 그의 유일한 루틴이자 삶의 낙으로 보이는 것은 오후 2시 단골 펍에서 친구 콜름을 만나 맥주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다. 마치 단짝과 등교하는 것처럼 파우릭은 콜름과 언제나 함께 다. 그랬던 콜름이 돌연 파우릭에게 다시는 보지 말라고 말한다. 이제 내가 싫어졌다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살면서 누군가에게 ‘싫어졌다’는 말은 듣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말은 ‘싫다’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찢은 뒤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상대가 그것을 이유로 헤어짐을 단언한다면 그때부터 한 사람의 일상은 지옥이 된다. 갑자기 드리운 거대한 먹구름에서 언제 멈출지 모를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파우릭 역시 그렇다. 시쳇말로 쿨하게 콜름의 이별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콜름을 찾아가고 그의 선택을 되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쓴다. 내 친구의 집을 향하던 경쾌한 발걸음은 조바심으로 다급해지고 쿵쿵대는 마음의 요동은 눈썹까지 출렁이게 만든다.



영화 '이니셰린의 벤치'.

물론 파우릭의 속만큼이나 콜름의 속 또한 편할 리 만무하다. 어느 순간 친구의 다른 조각들을 보게 되고 자꾸 거슬리게 되며 결국 그 친구와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챈 이의 고민 또한 작지 않았을 것이다. 콜름은 우리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기엔 절대적으로 스스로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마도 콜름은 구구절절 파우릭에게 자신의 나머지들을 설명하는 일이 둘 사이의 절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의 서울 퍼렇게 번져가던 불빛은 잿빛 재로 남는다. 다시는 전과 똑같은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된 순간, 지난한 싸움의 끝에 해변에 나란히 선 두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갑작스러운 전쟁과 힘겹게 찾아온 평화, 모진 말들과 아픈 상처들이 교묘한 파도 소리가 도착하는 곳에 뒤엉킨 해초처럼 당도한다. 참으로 지독하고 지난한, 해결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그랬기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수 있었음을 파우릭과 콜름 그리고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모두 알고 있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취 축 임

MBC플러스 대표이사



강지윤

(부: 강재업 · 모: 김아선)

·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 (前) MBC 시사교양 PD
· (前) MBC 이사 겸 기획조정본부장



주식회사 삼영교통

대표이사 강지윤 외 임직원 일동



일출랜드

대표이사 고승철 외 임직원 일동

MBC플러스 대표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